전법 일기

조계사 49재 문의한 프랑스 가족 부처님 일대기로 불자로 이끌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는 4월, 오늘도 조계사는 방문객들로 붐빈다. 수없이 많은 색색의 연등이 일주문부터 법당 앞마당, 10층 석탑 주변, 아기 미소 부처님 둘레, 그리고 회화나무 가지마다 가득 걸려 마치 극락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든다. 특히, 이 시기는 외국인 방문자가 연중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는 일주문 옆에 있어 수많은 방문객이 오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

어느 화창한 4월, 한 중년의 서양 여성이 방문록에 서명한 후, 문의가 있다며 안내소를 찾았다. 그녀는 49재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조계사에서 20년 넘게 봉사하며 많은 외국인에게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소개했지만, 서양 여성이 49재를 문의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51세이며 최근 사랑하는 하나뿐인 남동생을 암으로 잃었다고 했다. 말하며 터져 나오는 슬픔에 어깨까지 들썩였고, 필자 또한 40대에 세상을 떠난 하나뿐인 친오빠 생각이 나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울고 진정한 뒤, 함께 종무소로 가서 49재 절차를 알아보았다. 생존 가족과 동생을 위한 영가 등을 접수하고, 법당 앞마당과 극락전 앞에 등을 달았다. 그녀의 가족, 프랑스에서 함께 온 남편과 고등학생 딸이 회화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인사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논리적이며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불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편과 딸의 표정에서는 그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무덤덤함이 읽혔다.

이들 가족에게 잠시 시간이 있는지를 묻자, 괜찮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필자는 이들에게 대웅전 벽화 '팔상도(八相圖, The Eight Great Events of the Buddha's Life)' 앞에서 부처님 일대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兜率天)에서 호명보살(護明菩薩)로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강림하여 중생을 제도하기로 서원한 그림인 도솔래상(兜率來相)부터 들려주었다. 남편과 딸은 처음엔 다소 거리를 두고 무관심한 듯했지만, 설명이 1/3쯤 진행되자 점점 가까이 다가와 경청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부처님의 출가와 6년 고행,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설명하며 사성제, 중도, 무상, 무아의 가르침을 덧붙였다. 나는 불교가 샤머니즘이 아닌 논리적으로 정연한 진리임을 강조했다.

마침내 부처님이 80세에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沙羅雙樹) 아래에서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설명할 때에는 마치 오랜 도반처럼 친숙한 정을 느꼈다. 헤어지기 전, 필자와 프랑스인 가족은 서로를 따뜻하게 포옹하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아래서 세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자부심 가득한 마음을 이 전법일기에 남긴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송마나의 **시절인연**

약산의 웃음소리

〈藥山〉

벚꽃이 활짝 피었다. 벚나무는 몸속의 꽃을 밀어내 마른 가지마다 봄을 꽃피운다. 벚꽃이 만개한 길은 봄빛으로 들끓는다. 넘쳐흐른 봄빛은 겨우내 얼었던 땅의 껍질을 벗겨내고 숨구멍을 열었다. 생명이 약동하는 길을 걷는다. 끝없이 이어진 길이 하얀 웃음꽃을 터뜨린다.

벚꽃 길 너머로 바둑판처럼 구획을 나눈 시민 농장에 목련꽃도 피었다. 농장 입구에 서 있는 목련 한 그루가 수많은 등불을 켜고 환하게 불을 밝혔다. 봄빛을 가득 머금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꽃봉오리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땅 위로 푸릇푸릇 머리를 겨우 내민 푸성귀들이 목련꽃을 쳐다보며 희망의 웃음을 짓는다. 봄바람에 까르륵 까르륵 웃음소리가 농장에 가득하다.

개는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가르랑거릴 뿐 웃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웃는다. 웃음은 기쁨과 유머, 농담과 장난기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다. 보들레르는 웃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웃음이라 했다. 인간은 TV에서 바보연기를 하는 코미디언을 보고 웃고, 타인이 빙판길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린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웃음을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세상에 활력과 여유를 불어넣는 사회적 제스처로 보았나 보다.

그림 · 최주현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늙은 수도사 호르헤는 웃음을 싫어한다. 웃음은 자유로움과 쾌락을 상징하므로 경건해야 하는 신앙생활과 위배된다고 믿었다. 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가운데 '희극'이 나오는 책장에 독을 발라, 그 곳을 읽는 수도사들을 죽게 한다. 웃음은 순수한 인간적 반응이면서도 심리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당나라 때, 약산(751~834) 화상은 깜깜한 밤에 언덕을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보름달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산 밑 마을까지 들렸다고 한다. 약산은 왜 웃었을까?

봄기운이 가득 차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들고, 새가 노래를 부른다. 봄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웃음이 얼어붙었는지. 일체가 차가운 땅속에 들러붙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세상의 허무와 내 자신의 허무가 함께 얼어붙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둠에 매달려 나의 고유한 얼굴을 보지 못했다.

나는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맞이해야 하는가? 왜 나는 죽어야 하는가? 인간은 '왜'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느라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 찬바람과 흰 눈을 견디며 긴 긴 겨울밤을 지새운다. 이런 깊은 밤을 지새워야만 밝은 보름달을 보고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름달이 떠올랐다는 것은 어두운 겨울을 뚫고 웃음꽃이 피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고뇌와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면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약산의 웃음소리는 깨달음의 표현이다. 법(法)을 깨달으면 웃음은 그냥 터져 나온다. 나의 웃음소리가 신생의 설렘으로 봄바람에 흩날린다.

〈작가〉

기자칼럼

산불 희생 동식물 천도재를 올리자

보시행으로 유명한 시위왕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기 위해 불의 신 아그니는 비둘기로, 제석천은 매로 변해 시위왕을 찾았다. 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비둘기는 시위왕 품으로 날아갔고, 왕은 비둘기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시위왕 앞에 온 매에게 왕은 자신의 살을 잘라 매에게 보시했다.

하지만 정확한 무게로 살을 잘라줬음에도 비둘기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했고, 결국 시위왕은 자신을 희생해 몸 전체를 저울에 올렸다. 시위왕의 결심을 본 이그니와 제석천은 신의 모습으로 돌아와 왕의 결심과 보시행을 찬양한 뒤 천상으로 돌아갔다.

부처님의 전생담 '시위 자타카'가 떠오른 것은 지난 주말, 최원형 생태환경작가와 통화한 직후다. 원고 청탁을 위해 통화하던 중 주제는 자연스럽게 산불 이야기로 넘어갔다. 이날 대화에서 최원형 작가의 일침은 귓가에 오래 남았다. 요지는 이렇다.

"이번 산불로 인해 몇 헥타르의 산림이 타고, 경제적 손실이 얼마고, 인명 피해가 몇 명인지 산술적 통계들이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살피려 하지 않는다.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계조차도 이 같은 논의가 없다."

2020년 호주 산불 당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코알라를 구조하는 사진이 외신에 소개되며 세계인을 안타깝게 했다. 당시 호주 산불로 코알라를 비롯한 동물 113종이 서식지 30%를 잃었다. 이번 영남 산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삼수갑산을 노닐던 한반도 토종동물도 생을 잃고 서식지가 상실됐을 것이다.

이번 산불로 인해 30명의 인명이 희생됐다.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더불어 산불에 쓰러져간 동물과 식물에 대한 극락왕생도 기원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즈음해 불교계가 앞장서서 산불 희생자와 뭇 생명에 대한 천도재를 봉행하는 것이 어떨까. 부처님께서는 난생·태생·습생·화생과 형태·생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 해 멸도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